

맞벌이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및 갈등정도과 가정의 건강성 인식*

A Study on the subjective cognition and conflict degree of work-family balance and family strength of a dual career me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소 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주거학과
석사과정 김 혜 진***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Yoon, So-Young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The master's course Kim, Hye-J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 factors that influence subjective cognition, conflict degree of work-family balance, and cognition of family streng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factors, work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home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subjective cognition, conflict degree, and cognition of family strength. The main data source for analysis in this study is the Second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0. The survey includes the analysis of 419 respondents who have a dual income and live with their wife.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using SPSS 19.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bjective cognition of work-family balance is influenced by satisfaction of work, division of

* 본 논문은 201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논문을 재구성 한 것임

** 주저자 : 윤소영(soyoung@kcti.re.kr)

*** 교신저자 : 김혜진(remember1986@naver.com)

housework, and care of family. Second, the conflict degree of work-family balance is influenced by age, working week, and satisfaction with work.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ognition and conflict degree of work-family balance is a negative corre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ognition of work-family balance and cognition of family strength is a positive correlation but the difference between conflict degree of work-family balance and cognition of family strength is not significant. Finally, for the married men, the working environmental factor is a significant factor for the work-family balance.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work and division of domestic work, the greater is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This suggests that they also have a higher cognition of family strength.

Key Words :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주관적 인식(subjective cognition), 갈등정도(conflict degree), 가정건강성(family strength), 맞벌이기혼남성 (a dual income, married men)

I. 서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 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5%로 남학생의 7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65.4%이었던 것에 비해 10%p가량 높아진 반면, 남성의 대학진학률은 70.4%로 0.2%p감소하였다 (통계청, 2012).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4%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2000년의 48.8%에 비해서도 0.6%p 상승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의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빈도에서 아내는 시장보기와 쇼핑을 제외한 식사·요리 준비와 설거지의 영역 등에서 ‘거의 매일’ 하고, 남성은 대부분의 가사노동 영역에서 일주일에 1일 이하로 하고 있었다. 또한 통계청(2010)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해 남편(23.4%)과 아내(45.1%) 모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편과 부인 모두 10%내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하는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일-가정 균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균형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성은 가사분담, 자녀양육부담, 업무의 과중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순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이 일-가정 균형의 핵심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여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일-가정 불균형과 갈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성의 가족역할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일-가정 균형도 어렵다는 발견과 함께 남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송혜림, 2010).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이 증가하여 아내와 공평하게 노동

분담을 한다는 가정에서, 남성들도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수행에 따른 갈등이나 불균형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남성들의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나 불균형의 문제 등을 제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의 직장관련 변수가 일-가정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성의 일-가정 양립실태와 요구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관련 변수들이 남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송혜림, 2010). 초등기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역할과 일-가정 균형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동거 여부, 직종, 근무탄력성, 평일 근무시간, 평일 시간 외 근무시간, 월 평균 휴일 근무횟수 및 시간, 일주일 평균 회식모임 횟수, 일-가정 성공 중요성 등 직업변수가 기혼남성의 일-가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미진, 2011). 또한 사무직남성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가족 갈등’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야근빈도, 평일근무시간, 직장의 융통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배지혜·서혜영·이숙현, 2002).

행복한 생활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능하게 되고 균형 있는 삶은 가정의 건강성 및 안정성과 관련된다. Sirgy et al.(2009)은 균형 있는 생활이 주관적인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즉 하나의 생활영역에서 인간이 얻는 만족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 가족,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체계를 충족시킴으로써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운소영, 2010. 재인용). 또한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균형 잡힌 역할체계를 이룬 사람들이 높은 웰빙 수준 또는 행복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Marks and McDermid, 1996; Bhargava, 1995; Chen, 1996; Frisch, 2006)

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가정 균형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 및 가정의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정의 건강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가정 균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맞벌이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에서의 일과 가정일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겪는 불균형상태에서 오는 문제를 균형 있는 삶을 모색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 일 모두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정 관련 변인 및 근무시간, 급여, 휴가, 복리후생 등과 같은 근무환경 변인이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등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고, 이에 대한 부담 혹은 부족이 일-가정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맞벌이를 하는 남성이라면 일-가정 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일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오는 불균형과 아버지역할로부터의 소외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남성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송혜림·고선강·박정윤·권혜진·김유경·진미정, 2010).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 남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과 갈등정도와 가정의 건강성 인식의 영향 변인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정 남성들의 일반적특성, 근무환경특성, 가정환경특성의 변인이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과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한 연구

일-가정 균형이란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이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제도나 시설을 마련하여 해결되는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의 모든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정영금, 2008)

지금까지 여성의 일-가정 균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정 관련 변인에 대한 부담이 일-가정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과 관련한 부담은 여전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성별역할 분업에 의해 고착된 가정 내 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일하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영역에서 이중고를 경험하게 한다(여성가족부, 2006).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전일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 실태와 관련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조희금·서지원, 2009)에 의하면 부인의 자녀 돌봄 수행 비율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며, 부부 이외의 주체에 의한 자녀 돌봄 수행비율 역시 가정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

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장영은·박정윤·이승미·권보라, 2011)에서도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가 여성의 일-가정 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동거할 때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며, 남편의 가사노동에 만족할 때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더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근무환경적 특성이나 직업적인 특성도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를 둔 기혼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족 균형감에 대한 연구(정영금, 2006)에 의하면 근무시간, 기업규모, 복지제도시행정도가 일-가족 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집단이 10시간 이상인 집단보다 일-가족 지원용이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10명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지원용이성이 높았다. 또한 직장의 연장근로가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가정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조희금·서지원, 2009).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장영은 등, 2011)에서도 여성이 받는 월평균 급여, 근무시간, 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휴가 및 각종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모성보호 및 복리후생 제도 여부의 다양한 요인들 역시 여성의 일-가정 균형, 특히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황미라, 2011)에 의하면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직업이 관리직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요인으로는 직장 내 차별, 근로시간, 임금 및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 내 차별이 낮을수록, 근로시간과 임금 및 소득수준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맞벌이 기혼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사와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정 관련 변인 및 근무시간, 급여, 휴가, 복리후생 등과 같은 근무환경 변인이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부담 혹은 부족이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남성의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한 연구

남성의 가족역할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일-가정 균형도 어렵다는 발견과 함께 남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를 조사, 분석한 연구(송혜립, 2012)에서는 일-가정 양립실태, 일-가정 양립 장애요인, 일-가정 균형관련 경험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주 평균 45시간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없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휴무 상태에서는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는 제일 높았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갈등의 정도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일-생활 균형 정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도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 돌봄 관련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족친화 휴가제도, 가족친화 근무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의 실태와 요구도 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는 직업 관련 변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근무 융통성과 아내의 취업여부가 갖는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역할과 일-가정 균형에 관한 연구(이미진, 2011)에서는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기혼남성의 가족역할과 일-가정 균형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가족생활로 인한 일의 장애보다 일로 인한 가족생활의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가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동거 여부, 직종, 근무탄력성, 평일 근무시간, 평일 시간 외 근무시간, 월 평균 휴일 근무횟수 및 시간, 일주일 평균 회식모임 횟수, 일-가정 성공 중요성 등 기혼남성의 일-가정균형은 직업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역할과 일-가정 균형간의 관계는 아버지역할이 집단 간 평균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아버지역할을 잘하는 경우 일-가정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노동 시간과 평가가 일-가정균형에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노동분담 시간이 많고, 평가가 높을수록 일-가정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무직 남성을 대상으로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배지혜·서혜영·이숙현, 2002)에서는 남성이 지각한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은 어떠한가,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남성이 지각한 부모역할 만족도는 어떠한가,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은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긴 근무시간과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남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각

한 ‘일-가족 갈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야근빈도, 평일근무시간, 직장의 융통성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야근빈도가 잦을수록, 평일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장의 융통성이 적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인들은 중·장년기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의 36%를 설명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직업 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가족-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주 5일 근무제, 자녀수, 아버지의 연령이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가족 갈등’과 남성의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와 남성의 ‘가족-일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균형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 관련 변인 보다는 직종, 근무시간, 근무탄력성, 휴가, 야근빈도, 일 만족도 등과 같은 근무환경 변인이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부담 혹은 부족이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적 여건이 가족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3. 일-가정 균형과 가정의 건강성

1) 가정건강성의 개념 및 특성

가정의 건강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30년에 성공적인 가정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 Woodhouse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김정옥, 2008), 그 이후 1960년대 초 이후로 Otto, Stinnett, Olson, Defrain 등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가족건강성, 건강가족, 회복력 있는 가

족(family resilience)등 여러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Olson과 Defrain(2003)에 따르면 모든 가정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의 건강성이란 가족의 구조나 형태보다는 가족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Olson은 응집성, 융통성, 의사소통 과 같은 내적인 특징과 확대된 가족체계, 신념체계, 사회적 지원체계와 같은 외적인 특징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설명하였다. 즉 가정의 응집성이나 융통성이 높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정의하였다(조희금 외, 2005).

또한 가정의 건강성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가정이 어떻게 하여 실패하게 되었느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무엇이 가정을 잘 움직이게 하여 건강하게 하느냐 하는 가족의 긍정적인 강점을 강화하여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라는 것이다 (Olson, D.H & Defrain, J, 2003).

Otto(1962)는 건강가족의 특징으로 긍정적인 가족정체감, 가족원간의 만족스러운 상호작용, 가족의 잠재력이라고 설명하였고, Stinnett & DeFrain (1985)은 유대감, 적응성, 의사소통, 가족신념체계, 친족 및 사회관계망의 지원을 회복력 있는 가족이 지닌 특성(Walsh, 1998)으로 설명하였는데(김정옥, 2008, 재인용) 여기에서 회복력 있는 가족이란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대처와 적응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영주(1991)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건강가족’ 및 ‘가정건강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유영주(2004)는 건강가족을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사회체계의

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 가는 체계라고 정의 하였다.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설명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족 간의 유대의식에 관한 내용, 그밖에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공유, 역할충실, 가족원의 신체적인 건강, 가족·사회와의 유대, 경제적 안정과 협력, 문제해결능력 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조희금 외(2005)에 따르면 가정이 사회단위로서 가족관계나 자원관리 등의 가족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 역할 및 관계형성 등의 가족외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정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원이 갖추어진 상황을 가정이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다시말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역할을 공유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지역사회 활동 등을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결될 때, 건강한 가정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희금 외(2005)의 정의에 근거하여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역할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지역사회 활동 등을 참여함으로써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상태를 건강한 가정이라고 정의한다.

2) 일-가정 갈등과 가정의 건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일-가정의 갈등과 가정의 건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기혼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족 간 갈등양상과 가족건강성의 관계에 대한 연

구(전서영·박정윤·김양희, 200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건강성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와 일-가족 간 갈등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변인에서는 학력, 가정변인에서는 자녀유무, 양육도우미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직장변인에 따라서 가족건강성의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일-가족 간 갈등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가족 간 갈등 전체와 하위변인은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일 갈등 전체, 긴장갈등, 행동갈등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갈등 정도가 낮은 집단의 평균이 높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긴장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갈등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갈등 정도가 낮은 집단의 평균이 높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가정건강성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 및 그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정숙, 2007)에서 성별, 교육수준, 거주 지역,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및 생활수준의 인식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영역별로는 부부관계영역이 모든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가족가치 영역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거주 지역은 경제생활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과 생활수준을 높게 인식한 집단이 낮게 인식한 집단보다 전체가정건강성과 하위영역별 가정건강성 수준이 높았다.

성인남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에 관한 연

구(이선미, 2011)에서는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성별, 세대별, 가족유형별로 탐색하였다. 가족건강성에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변인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관련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인식도, 가족가치관도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기능 인식도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가족유형별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아 존중감, 우울, 가족기능 인식도, 가족가치관 등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남성은 생활수준, 여성은 가족개념수용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30대에서는 생활수준과 가족기능 인식도, 40-50대는 가족개념 수용도와 가족기능 인식도, 60대 이상에서는 가족가치관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모든 가족 유형에서 우울이 공통 영향변인이었고, 핵가족의 경우 가족기능 인식도와 자아존중감이, 확대가족의 경우는 생활수준과 가족기능 인식도가, 부부가족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복매·문혁준, 2008)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200만원 미만집단, 200~300만원 미만집단,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 변인이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 변인이 일-가정 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 변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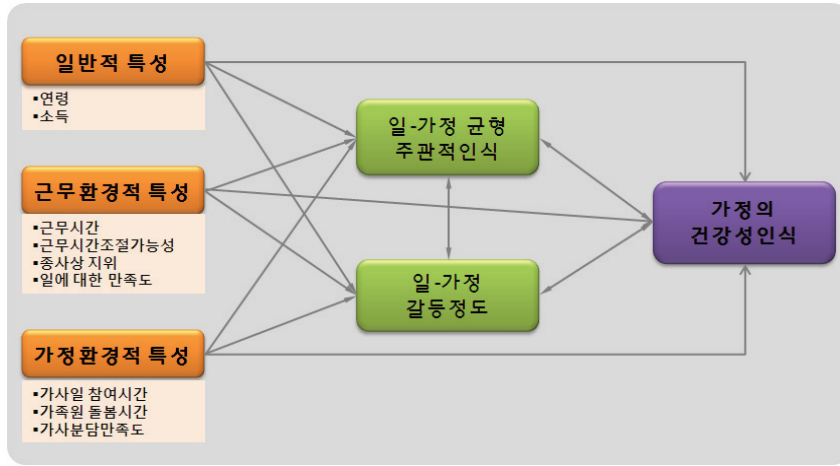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4.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1일 총 6주 동안 진행되었고, 전국의 일반가구와 일반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 4754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본가구 추출은 확률표집법의 하나인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을 바로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하는 CAPI(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2차 가족실태조사」자료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인구통계적 특성, 일과 돌



〈그림 1〉 연구모형

봄에 관련한 사항, 가족원의 가사참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이 조사에 응답한 4,754명 가운데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남성 419명으로 한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19.0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혼남성의 일-가정균형의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소득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시간, 근무시간조절가능성, 종사상지위,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의 근무환경적 특성, 그리고 가사일 참여시간(1회 평균시간), 가족원 돌봄 시간(1주일 평균시간), 가사분담만족도 등의 가정환경 특성 등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4. 변수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영역은 크게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과 일-가정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제시된 변수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재범주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변인으로는 연령, 소득으로 구성된다. 연령은 주관식문항의 만나이로 측정되었으며 총4개의 객관식문항(1=20~30대, 2=40대, 3=50대, 4=60대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은 18개의 문항(1=49만원 이하, 2=50~99만원, 3=100~149만원, 4=150~199만원, 5=200~249만원, 6=250~299만원, 7=300~349만원, 8=350~399만원, 9=400~449만원, 10=450~499만원, 11=500~549만원, 12=550~599만원, 13=600~649만원, 14=650~699만원, 15=700~749만원, 16=750~799만원, 17=800만원 이상, 18=소득없음)을 18번의 소득없음을 제외한 17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4개의 소득집단(1=200만원미만, 2=200~300만원미만, 3=300~400만원미만, 4=400만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학력변수는 설문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근무환경적 특성의 변인은 근무시간, 근무시간조절가능성, 종사상지위, 일 만족도로 구성하였

다. 근무시간은 주관식문항으로 일주일평균 근무시간으로 측정되었다. 근무시간조절가능성은 근무시간의 조절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5개의 객관식문항(1=근무시간 조절이 전혀 불가능하다, 2=근무시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3=보통이다, 4=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 5=매우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을 3개의 그룹(1=근무시간조절불가능, 2=근무시간조절보통, 3=근무시간조절가능)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종사상지위는 6개의 객관식문항(1=상용근로자, 2=임시 및 일용근로자, 3=고용주, 4=단독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6=기타종사자)을 3개의 그룹(1=상용근로자, 2=임시 및 일용근로자, 3=고용주,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일 만족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로 5개의 문항(1=매우 불만족, 2=다소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정환경적 특성의 변인은 가사노동시간, 가족원 돌봄 시간, 가사노동만족도로 구성되어있다. 가사노동시간은 가사일 참여시간으로 총 10개의 문항(①=식사준비, ②=설거지, ③=세탁, ④=다림질, ⑤=집안청소, ⑥=음식물쓰레기버리기, ⑦=쓰레기분리수거, ⑧=시장보기, ⑨=가정경영, ⑩=인터넷쇼핑)로 구성된 것을 가사노동 1회평균 소요시간(분)으로 합하여 사용하였는데, 가사노동시간을 1회 참여시간으로 사용한 이유는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문항에 제시되어있는 단위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가족원 돌봄 시간은 일주일평균 가족원 돌봄 노동 시간으로 '0~6세 자녀 돌봄+7~12세 초등학교 자녀돌봄+13~24세 자녀돌봄+노인 및 기타가족원 돌봄' 시간의 합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가사노동 만족도는 가사분담과 돌봄노동 분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로 5개의 객관식문항(1=매우불만족, 2=다소불만족, 3=보통, 4=대체로만족, 5=매우만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은 일과 가정생활간 균형정도에 대한 인식정도로 5개의 객관식문항(1=매우 불균형하다, 2=불균형한 편이다, 3=보통이다, 4=균형적인 편이다, 5=매우 균형적이다)으로 구성되어있고, 갈등정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 경험정도로 5점 리커트 척도 형식(1=전혀그렇지않다, 2=거의 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그렇다, 5=매우그렇다)으로 구성된 11개의문항 중 ⑪번의 문항을 역코드 한 후 ①번부터 ⑪번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의 건강성 인식은 개별가정의 건강성 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로 1점(매우건강하지않음)-10점(매우건강함)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과 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연령대는 20~30대가 23.2%, 40대가 39.1%, 50대가 22.4%, 60대 이상이 15.3%였다.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1.1%, 200~300만원대가 38.2%, 300~400만원대가 21.2%, 400만원 이상이 9.3%였다. 근무환경적 특성은 근무시간 조절가능성, 종사상 지위, 일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근무시간 조절가능성은 조절불가능이 46.8%, 조절보통이 27%, 조절가능이 26.3%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53.5%,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5.5%,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는 41.1%였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족이 1.2%, 다소불만족이 11.2%, 보통이 37.9% 대체로 만족이 46.8%, 매우만족이 2.9%였다. 가정환경적 특성으로 가사분담 만족도가사분담 만족도는 다소불만족이 4.8%, 보통이 47.3%, 대체

로만족이 47.5%, 매우만족이 0.5%였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48.81시간이었다. 1회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72.49분 이었고,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은 5.76시간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인		N	(%)
일반적 특성	연령(세) (mean= 47.94)	20~30대	97	(23.2)
		40대	164	(39.1)
		50대	94	(22.4)
		60대 이상	64	(15.3)
	소득	200만원 미만	131	(31.3)
		200~300만원	160	(38.2)
		300~400만원	89	(21.2)
		400만원 이상	39	(9.3)
근무환경적 특성	근무시간조절가능성	조절불가능	196	(46.8)
		조절보통	113	(27.0)
		조절가능	110	(26.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24	(53.5)
		임시일용근로자	23	(5.5)
		고용주/자영업/기타	172	(41.1)
	일 만족도 (mean=3.39)	매우불만족	5	(1.2)
		다소불만족	47	(11.2)
		보통	159	(37.9)
		대체로만족	196	(46.8)
		매우만족	12	(2.9)
	가정환경적 특성	가사분담 만족도 (mean= 3.44)	매우불만족	0
다소불만족			20	(4.8)
보통			198	(47.3)
대체로만족			199	(47.5)
매우만족			2	(0.5)
구분	변인		M	SD
근무환경적 특성	주당 평균근로시간(시간)		48.81	13.667
가정환경적 특성	1회 평균 가사노동시간(분)		72.49	88.105
	1주일 평균 돌봄시간(시간)		5.76	19.742

2.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의 변인이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영향력 분석

일-가정 균형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표 2>와 같다.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 만족도($\beta=.363, p<.001$),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beta=.221, p<.001$)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분담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가정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235$). 이는 이미진(2011)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일-가정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의 변인이 일-가정 갈등정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일-가정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일-가정 갈등경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만 나이($\beta=.172, p<.001$), 일주일 평균근로시간($\beta=.147, p<.01$), 일 만족도($\beta=.129, p<.05$)로 나타났다. 즉, 만 나이가 젊을수록,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가정 갈등경험이 더 많은 것으

<표 2> 일-가정 균형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일-가정균형 주관적인식	
		B(표준오차)	β
상수		1.187 (.376)	
일반적 특성			
만 나이		.000 (.004)	.002
소득	200-300만원	.084 (.083)	.061
	300-400만원	.059 (.093)	.036
	400만원 이상	.203 (.117)	.090
근무환경적 특성			
일주일평균근로시간(단위:시간)		- .003 (.002)	- .067
근무시간 조절가능성	근무시간조절보통	.090 (.075)	.060
	근무시간조절가능	.068 (.086)	.044
종사상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31 (.149)	.011
	고용주,자영업 기타	- .003 (.081)	- .002
일 만족도		.316 (.043)	.363 ***
가정환경적 특성			
가사노동1회 평균 소요시간 합		.000 (.000)	- .063
일주일 평균 돌봄시간		.011 (.046)	.013
가사/돌봄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248 (.053)	.221 ***
R^2		.235	
F		9.054 ***	

#가변수(기준변수): 소득(200만원 미만), 근무시간조절가능성(근무시간조절불가능), 종사상지위(상용근로자)

(표 3) 일-가정 갈등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일-가정갈등정도	
		B(표준오차)	β
상수		3.263 (.443)	
일반적 특성			
만 나이		- .012 (.004)	- .172 ***
소득	200-300만원	- .084 (.098)	- .056
	300-400만원	.149 (.109)	.084
	400만원 이상	.193 (.138)	.078
근무환경적 특성			
일주일평균근로시간(단위:시간)		.008 (.003)	.147 **
근무시간 조절가능성	근무시간조절보통	.134 (.089)	.082
	근무시간조절가능	.100 (.101)	.059
종사상지위	임시,일용근로자	.097 (.175)	.030
	고용주,자영업 기타	- .065 (.096)	- .043
일 만족도		- .123 (.051)	- .129 *
가정환경적 특성			
가사노동1회 평균 소요시간 합		- .001 (.000)	- .070
일주일 평균 돌봄시간		- .057 (.054)	- .059
가사/돌봄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 .006 (.063)	- .005
R ²		.114	
F		3.786 ***	

#가변수(기준변수): 소득(200만원 미만), 근무시간조절가능성(근무시간조절불가능), 종사상지위(상용근로자)

로 나타났다($R^2=.114$).

평균근로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갈등경험이 많다는 것은 배지혜 외의 연구(2002) 등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어려 가정생활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의 변인이 가정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월 소득 200-300만원미만 집단($\beta=.183, p<.01$), 300-400만원 미만 집단($\beta=.168, p<.01$), 400만원 이상 집단($\beta=.160, p<.01$), 근무시간 조절가능성이 보통인 집단($\beta=.127, p<.05$), 근무시간조절이 가능한 집단($\beta=.168, p<.01$),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 자영업 기타인 집단($\beta=.198, p<.01$), 일 만족도($\beta=.170, p<.01$),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beta=.183, p<.001$), 일과 가정생활 간 균형정도($\beta=.103, p<.05$)로 나타났다. 즉, 200만원 미만의 소득과 비교해 200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집단에서, 근무시간 조절불가능한 집단과 비교해 근무시간의 조절이 가능하거나 보통인 집단에서, 상용근로자 집단과 비교해

〈표 4〉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가정의건강성인식	
		B(표준오차)	β
상수		5.157 (.689)	
일반적 특성			
만나이		- .012 (.007)	- .108
소득	200-300만원	.451 (.151)	.183 **
	300-400만원	.491 (.168)	.168 **
	400만원이상	.647 (.213)	.160 **
근무환경적 특성			
일주일평균근로시간(단위:시간)		.001 (.004)	.010
근무시간 조절가능성	근무시간조절보통	.341 (.137)	.127 *
	근무시간조절가능	.465 (.155)	.168 **
종사상지위	임시,일용근로자	.282 (.269)	.054
	고용주,자영업 기타	.486 (.147)	.198 **
일 만족도		.265 (.083)	.170 **
가정환경적특성			
가사노동1회 평균 소요시간 합		.001 (.001)	.090
일주일 평균 돌봄시간		- .050 (.083)	- .031
가사/돌봄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367 (.099)	.183 ***
일과 가정생활간 균형정도		.184 (.092)	.103 *
R ²		.220	
F		7.686 ***	

#가변수(기준변수): 소득(200만원 미만), 근무시간조절가능성(근무시간조절불가능), 종사상지위(상용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 집단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 할수록, 아내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을수록 가정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에 대해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황미라(2011)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본인의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근무시간 조절이 수월한 경우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유연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가정의 건강성 수준을 높게 인지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5.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 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의 관계에 대한 분석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경험정도,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세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과 가정의 건강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일-가정 갈등정도과 가정의 건강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일-가정의 갈등경험 정도가 낮을수록

〈표 5〉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 상관관계

	일-가정균형 주관적인식	일-가정 갈등정도	가정의건강성인식
일-가정균형 주관적인식	1	-.288**	.247**
일-가정갈등경험정도		1	.022
가정의건강성인식			1

일-가정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건강성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일-가정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가정생활 간에 발생하는 갈등요인이 적을 때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적이라고 생각 할 때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갈등정도,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적 특성, 가정환경적 특성 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를 이용하였고 총 419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및 갈등정도와 가정의 건강성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기혼남성의 평균연령은 48세로, 한 달 평균 200~300만원 미만(38.2%)의 소득을 버는 상용근로자(53.5%)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특성, 가정환경 특성의 변인이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 자

신의 일에 대해 만족할수록, 그리고 아내와의 가사분담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과 가정생활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R^2=.235$)

셋째, 제 변인들의 일-가정 갈등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 제 변인의 설명력은 11.4%로 나타났다. 나이가 젊을수록,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과 가정생활간의 갈등상황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일-가정 갈등정도,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과 일-가정 갈등정도는 부적 상관관계,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과 가정의 건강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일-가정 갈등정도와 가정의 건강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이 변인을 제외한 제 변인들의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특성, 가정환경특성,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등의 변인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의 소득과 비교해 200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집단에서, 근무시간조절이 불가능한 집단과 비교해 근무시간조절이 가능하거나 보통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상용근로자와 비교해 고용주나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자신의 일과 아내와의 가사분담에 대해 만족할수록,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가정의 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기혼남성들의 일과 가정생활간의 균형에는 근무환경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가정의 건강성 수준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재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48.81시간으로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 40시간 노동제를 준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젊은 층의 맞벌이부부들은 어린자녀의 양육으로 가정생활의 부담이 많으므로 돌봄 정책이나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 집단의 가정 건강성이 높다는 결과나 일-가정 균형성이 높은 집단의 가정 건강성이 높다는 결과는 생활에 있어서 여러 영역의 균형과 조절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맞벌이가정의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역시 노동시간의 감소와 일-가정 균형을 통해 가정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을 시간배분이나 역할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가정 갈등 측면에서 접근했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건강성인식 일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일-가정 균형에 접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고 특히 남성의 경우 근무환경적 특성이 일-가정 균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실행

이 일-가정 균형과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무시간 조절이 보통이거나 가능한 집단의 경우 가정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아 유연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서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다양한 변수들을 확대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후속연구의 진행을 통해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옥(2008). 가정의 건강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웰니스 패러다임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37-56.
- 2) 박복매·문혁준(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0), 11-22.
- 3) 배지혜·서혜영·이숙현(2002). 사무직 남성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43-84.
- 4) 송혜림·고선강·박정운·권혜진·김유경·진미정(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 5)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6) 여성가족부(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 7)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 8)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

- 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9) 윤소영(2010).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가경험에 대한 접근. 여가학연구, 8(1), 45-60.
- 10) 이미진(2011). 초등기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역할과 일-가정 균형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 11) 이선미(2011). 성인남녀의 가족건강성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9(5), 129-142.
- 12) 이정숙(2007).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579-597.
- 13) 인터넷 자료 통계청. www.nso.go.kr.
- 14) 장영은·박정윤·이승미·권보라(2011). 유아녀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63-72.
- 15) 전서영·박정윤·김양희(2008). 기혼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59-79.
- 16) 정영금(2006).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균형감과 지원용이도/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107-118.
- 17)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18) 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2005). 건강가정론. 서울 : 신정.
- 19) 조희금 외11(2011). 가족의 고민, 실천을 말한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모임 가족정책포럼집.
- 20) 조희금·서지원(200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61-81.
-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여성가족패널조사.
- 22) 황미라(2011).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23) Froma Walsh(1998). 양옥경·김미옥·최명민 역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 : 나남출판.

- 투 고 일 : 2013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4월 19일